번호: OP-J-003					
제 목	민간의료보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함의 The Determinan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urchasing decision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 The expanding of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for the better or worse				
저 자 및 소 속	윤태호1), 황인경1), 손혜숙2), 고광욱3), 정백근4) 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ae-Ho Yoon1), In-Kyung Hwang1), Hae-Sook Sohn2), Kwang-Wook Koh3), Baek-Geun Jeong4) 1) Dept. of Preventive &amp, Occupatio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3)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 4)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분 야	의료관리 [의료보장/경제성평가]	발 표 자	윤태호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연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요인, 보건의료 제도적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국민의 의료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부산광역시 10,400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주거지 불명, 응답거부,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가구원 중에서 건강수준,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 의료제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7,8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9월-10월의 2개월이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민간의료보험의 개념은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을 제외한 '질병특약보험, 어린이 건강보험, 암보험' 등 질병을 취급하는 단일 민간의료보험 상품으로만 한정하였고, 가입 유무는 조사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로 결정하였다. 조사 시점에서 응답자가 구매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종류나 개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의료보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질병 및 건강행태, 의료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성과 연령을, 사회경제적 요인은 가구소득, 가구 지출, 교육수준, 의료보장 형태를, 질병 및 건강행태 요인은 만성질환 유무, 지난 1년간 입원경험 유무,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 음주,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수검 유무를, 제도적 요인은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과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기술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SAS v9.01을 이용하였다.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는 모든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연령, 만성질환, 지난 1년간 입원, 주관적 건강수준,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건강보험 만족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들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다변량 분석에서는 성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더 커지는 결과를 보였고, 연령군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인 소득과 지출, 교육수준, 의료보장 형태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위소득계층에 비해 중상계층은 1.7배, 상위계층은 2.12배나 더 민간의료보험을 구매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비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2배이상 높았다($p<0.001$). 주관적 건강수준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0.75배 정도 민간의료보험을 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받은 사람이 민간의료보험를 구매할 확률이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민간의료보험을 왜 구매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1.2%가 '암 등 중증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응답하였고,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혜택이 적어서' 11.2%, '보험설계사 권유' 9.0%, '친지권유' 4.3%, '건강보험 고가진료 혜택이 적어서' 3.4%의 순이었다**결론:** 본 연구결과는 현행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에서도 위험선택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이 기대한 만큼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현재보다 활성화될 경우 사회계층간, 연령계층간 의료이용의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